



일러스트레이션 카페 외벽의 자유게시판. 일러스트레이션 신인작가들이 연락처와 함께 자신을 작품을 게시해 교류하고 있다.

안준모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2004년 4월14일(수)부터 17일(토)까지 개최된 제41회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 우리나라는 한국관 참가사를 포함하여 총 25개 출판사가 참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63개국에서 1,100개 사가 참가 하였으나, 전반적인 도서전 분위기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된 인상이었다. 국내 출판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대략 350여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전시장은 8개 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단층구조로 되어 있다. 전시장을 이동할 때 계단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시장은 중앙에 일러스트레이션 카페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국내관 4개 동과 유럽 및 중남미, 영미권, 아시아 국가의 참가사용으로 3개 동이 있다. 각 전시동마다 연결통로 등에는 특별 코너를 마련하여 볼로냐 라가치상(라가치는 이탈리아어로 아동을 의미한다)을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이토록 전세계 아동 출판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계 아동 도서 출판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볼로냐 라가치상 시상 ▲신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등용문인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선정 및 일러스트레이션 카페 운영 ▲번역가 활동, 교육출판 및 전략, 아동도

유럽이 반한 대한민국 일러스트레이션



관람객이 일러스트레이션 카페에서 포스터를 구입하고 있다.

서 국제출판경향, 아동 미디어 등을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방송·영화저작권센터 및 저작권 에이전시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선정에는 전세계 64개국의 2,775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응모하여, 국내작가(황은아) 1명과 웅진닷컴의 토토리 시리즈를 그린 외국작가를 포함 모두 21개국 100명

1
2 3

웅진닷컴의 《팔죽할멈과 호랑이》와 초방의 《지하철은 달려온다》가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을 받았다.

- 1_ 시상식 리셉션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국내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 2_ 라가치상 수상자들.
- 3_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는 웅진닷컴 오규화 국장과 초방 신경숙 대표.

의 작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일러스트레이션 카페에 게시하는 것 이외에도 카페 외벽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하여 신인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이 연락처와 자신의 작품을 게시하고 상호 교류를 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또한 도서전 기간 중에는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국제아동도서위원회, 스위스 소재)가 선정하는 안테르센도서상과 일러스트레이션상이 발표됐다. 금년에는 작가상으로 아일랜드의 마틴 왜들 Martin Waddell이, 일러스트레이션상으로 네덜란드의 막스 벨투이시스 Max Velthuis가 수상을 하였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주제국가는 그리스였다. 지금까지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 지난 1990년 중반에 주제국가로 참가한 것이 전부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7대 출판강국으로서 출판문화와 국내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알리기 위해 볼로냐아동도서전 일러스트레이션 주제국가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침 도서전 기간중 볼로냐아동도서전 조직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도서전의 의미는 지난 196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들에 시상



해오고 있는 볼로냐 라가치상에 대한민국 아동 도서 《팔죽할멈과 호랑이》(웅진닷컴), 《지하철은 달려온다》(초방)가 각각 픽션과 논픽션분야에서 처음으로 우수상(Honorable Mention)을 수상한 것이다. 시상식은 4월 14일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일러스트레이션 카페에서 치러졌으



며, 대한민국의 두 개 출판사가 수상을 하게 되어 내외신 기자들을 포함하여 시상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또한 한국관 참가와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을 기념하여 한국관에서는 4월 15일에 리셉션을 개최해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웅진닷컴과 초방의 수상소감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에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장 폴커 노이만 Volker Neumann 씨를 비롯하여 각국의 출판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대한민국 출판계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서 보다 확대된 출판의 다양화와 수준향상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출판산업의 국제적인 지위와 역량을 세계출판계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중국어권을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서의 한류로 인하여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출판물의 저작권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에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직접적인 저작권 수출 건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676건 계약에 543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사후 계약을 한 것을 합치면 3,423건 2,142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에 대부분의 수출이 타이베이국제도서전과 북경국제도서전 등에서 계약이 되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을 비롯한 구미권의 도서전에서는 아직도 언어

장벽 등 여러 요소들 때문에 저작권수출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 출판사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 앞으로 국내 출판계의 구미권에 대한 저작권수출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출판저작권의 해외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마다 기획단계부터 세계인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수출지역 및 언어와 문화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도서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를 통하여 점차 넓혀갈 수 있다.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작권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도서전에 대한 꾸준한 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판사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시회에 비용문제 때문에 참가를 유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시장 판매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 저작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꾸준한 참가를 통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



- 1_ 볼로냐 아동도서전이 열린 이탈리아 볼로냐 시내 전경.
- 2_ 8개동으로 구성된 볼로냐 아동도서전 전시관 입구.